

니카라과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소식 드리지 못한 그 간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니카라과 선교가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 간을 씬없이 사역을 해 온 저희 부부가 안식년 중에 있으므로 선교지는 큰 아들 박태진 선교사 가족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선교사는 방년 32세, 뉴욕대와 연세대에서 수학하고 홀러신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7살에 한국에서 선교지로 나와 자란 1.5세대로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찬양 리더로, 설교자로, 통역자로 동역했으므로 니카라과 신학교와 마나과 어린양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정중은 사모와 의술(6세), 의담(3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건강때문에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오게 되어 박태진 선교사가 미처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를 찾지 못해서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신학교는 현재 7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현지인 교수 3명과 박태진 선교사가 강의를 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입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도 어렵게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낙제를 시키는 강경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면학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올 12월에 3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마나과 어린양교회는 2백여 명이 모입니다. 박태진 선교사가 직접 설교를 하고 정중은 선교사가 찬양팀을 가르쳐 리드합니다. 저희가 떠나면서 앞으로 아들이 설교를 할 거라고 말했을 때, 나이도 어린 아들이 뭘 은혜의 설교를 하겠냐고 경홀히 여기던 교인들의 선입견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탄탄한 성경적 기반을 갖춘 설교를 해 주니 나이도 젊은 데 어떻게 아는 것이 그렇게 많냐며 아주 좋아합니다. 정중은 선교사는 스페니쉬를 못하는 데도 찬양은 잘 하니, 교인들이 스페니쉬를 잘 하는 줄 알고 말을 걸어 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선교지로 막 왔을 때 뽕양고 깨끗한 전형적인 도시아이의 모습이었던 의술이와 의담이는 어느 덧 흙먼지 속에서 개들과 뒹굴며 열대의 햇살에 까맣게 그을은 시골아이로 완벽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정중은 선교사는 모기에게 물린 상처 투성이 다리에다 백옥같던 피부는 간 곳 없고 고생에 찌든 촌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도 24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제 자신에 대해선 몰랐는데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대를 이어 2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박태진 선교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성도, 박순옥 선교사 올림